



가계부채 및 이자비용 증가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1년 2/4분기 가계부채가 전분기 대비 18조 9,000억 원 증가로 876조 3,000억 원을 기록함에 따라 누적 가계부채가 9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남.

-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은 전분기 대비 17조 8,000억 원 증가한 826조 원으로 나타났다으며, 판매신용은 1조 1,000억 원 증가하여 50조 3,000억 원을 기록함.
- 기관별 가계대출을 살펴보면, 예금은행의 경우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기타대출이 전분기 대비 4조 1,000억 원 증가하였으며,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2조 5,000억 원, 기타대출이 3조 9,000억 원 증가함.

〈그림 1〉 가계부채 증가 추이



자료: 한국은행.

■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2/4분기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이자비용이 늘어나면서 가계소득 중 비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함.

- 2011년 2/4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이자비용은 전년동기 대비 11.4% 증가한 8만 6,256원을 기록함.
 - 이는 주택구입 및 가계운영 목적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만을 포함하므로 사업 목적 등 기타대출에 대한 이자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가계의 이자부담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됨.
- 가계소득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.3%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특히 소득기준 하위 20%의 이자비용이 전년동기 대비 40.8% 급증하는 등 저소득층 이자부담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- 한편, 이자비용을 비롯한 조세, 국민연금, 건강보험과 같은 비소비지출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2/4분기 들어 18.9%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함.

(2011년 2/4분기 가계신용(잠정) 등, 한은, 8/23)